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주소 :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吉淳
 編輯人 申吉淳
 印刷人 宋永哲



을미대동세보 인터넷 출시(出示) - 대중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



평산신씨
대중중

총 | 표 | 간 | 회 | 편 | 임 | 장 | 위 | 원 | 관

대중중소개 평산신씨소개 선조유적지 견지대동보 전통문화예절 파종중 서명방소식



충렬도

2018년 7월 1일부터 드디어 을미대동세보를 대중중 홈페이지나 모바일(핸드폰)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종친회원이면 누구나 본인의 족보를 열람할 수 있고, 또 신규, 변경, 추가 등의 신청도 1년에 2회 신청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중에서는 2015년에 을미대동세보를 발간한 이후 인터넷(전자)족보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중중 편집 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하여 시행 과정 중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운영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고, 편집위원을 보강하면서 신중을 기해 왔다. 또한 시행하고 있는 타 문중의 장·단점도 파악하고, 시행할 회사를 선택하고자 3개 회사를 초청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시연회를 갖는 등 앞으로 시행에 따른 과오나 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인터넷 족보 신청과 열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하니 이용에 참고하기 바란다.

1. 족보 등재 신청은 각종 증빙서나 공부 등에 의거 작성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명이나 생년월일, 학력, 상벌, 훈장, 학위 등은 증빙서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기 바람
2. 신청서는 홈페이지(사랑방소식-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되, 여러 양식 중에서 필요한 양식을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3. 작성한 신청서는 증빙서와 함께 파종중으로 제출하면, 파종중에서는 전체를 취합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고 수단비는 대중중계

좌로 입금하면 된다.

4. 신청시기 및 열람 : 매년 2회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신청 할 수있고, 등재된 내용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핸드폰)로 열람할 수 있다.
5. 7월 1일 부터는 기존 을미대동보 내용과 5월 31일까지 신청한 내용을 우리홈페이지 ‘전자족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조만간 모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란다.(한 집안 1명 가입)

▶ 홈페이지 가입 방법 ◀

1. 먼저 ID 와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정하여,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에서 간단히 가입한 다음, 회비를 송금하고 아래 메일이나 전화로 ‘족보에 있는 본인 성명과 부친의 성함’을 알려주면 열람이 가능한‘종친회원’으로 변경하여 드린다.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평산신씨대중중’을 치거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감.)

- 회비 : 1년 3,000원 5년 10,000원
- 계좌번호
 - 회 비 : 농협 301-0202-9520-11(평산신씨 대중중)
 - 수단비 : 하나 027-766111-23504(평산신씨 대중중)
- 전화번호 : 02)776-6151, 6111
- 이메일 : pyongsan777@naver.com
- 홈페이지 주소 : www.pyeongsan.com

장수 종원 축하

대중중 사업계획중 하나인 평산신씨 장수 종원 축하 계획에 의하여 2018년 6월 30일 현재 을미대동보에 수단 등재된 卒壽(90세)를 넘기신 종원을 파종중도유사와 시·도화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아홉 어르신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선물로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장수하신 종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평소 긍정 마인드로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小食), 봉사와 취미생활로 부지런하신 어른들이시다. 앞으로도 계속 90세 이상 장수 종원이 파악 되는데

로 축하를 드릴 예정이니 주변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시면 파종중이나 시·도화수회에 통지하여 축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을미대동세보 등재 복사본 1부. 3) 사진 1매. 4) 기타 : 자기소개서 또는 장수비결, 연락처 등 소개서 1부 이다.

▶ 축하 받으신 어르신

- 1919년 11월 24일생 鉉國(현국, 一名正鉉, 漢城尹公派)
- 1922년 6월 1일생 泰均(태균, 正言公派)
- 1922년 9월 10일생 大容(대용, 思簡公派)
- 1927년 1월 8일생 正均(정균, 思簡公派)
- 1927년 2월 9일생 東奭(동식, 一名一東, 密直公派)
- 1927년 5월 25일생 哲湜(철식, 一名基煥, 漢城尹公派)
- 1927년 6월 10일생 相均(상균, 思簡公派)
- 1927년 10월 13일생 泰九(태구, 一名泰華, 典書公派)
- 1928년 7월 7일생 榮均(영균, 思簡公派)

[遺跡址 巡迴錄 第1回]

용산단龍山壇



[현대 용산단도유사]

전남 곡성(谷城)읍내에서 남으로 50리 가량인 비례산(飛來山)아래 대항강(大荒江)위쪽에 구룡리(九龍里)가 있으니 여기가 곧 시조 고려태사 장절 신공휘 승겸(高麗太師壯節申公諱崇謙)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는 여기저기에 장절공의 많은 유적들이 흩어져 있는데 독서당 유지(讀書堂遺址), 신공정(申公井), 사대(射臺)는 비례산 도장동(道藏洞)에 있어 이 산을 일명 신유봉(申遊峰)이라 부르며, 치마대(馳馬臺), 철갑암(鐵甲岩), 장군천(將軍泉)은 화장산(華藏山)에 있다. 또 장군등(將軍燈), 계마석(繫馬石), 용소용탄(龍沼龍灘)의 목욕처(沐浴處)등이 있는데 이곳 노인들 사이에 오래도록 알려져 전해온 유적들이다.

일찍이 고종(高宗) 무진년 1868년에 후손 명희(命熙)가 후손 보국 헌(櫨)과 판서 석희(錫禧)에게 협의하여 종계를 만들어 그 자금으로 산림과 전답을 매입하고 초목(樵牧)을 금지케하여 이를 수호해 오다가 30년 후인 고종 정유년 1897년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이어 순종(純宗)후 기사년 1929년에 이르러 사론(士論)에 의하여 설단(設壇)하고 이곳 고을 이름을 따라 용산단(龍山壇)이라 했으며, 매년 음력 9월 중정일(仲丁日)에 제사를 거행하고 있다.

서기 1973년 후손 현모(鉉模)등이 장군단(將軍壇)에 입비(立碑)하고 태안사 입구에 영적비(靈蹟碑)를 세웠으며 1960년에 후손 봉식(鳳湜)등이 주축이 되어 용산재(龍山齋)와 구룡문(九龍門)을 단소(壇所) 아래 창건하고 방명비(芳名碑)를 세웠다.

1981년 전남도 화수회 세풍(世豐)회장과 형철(亨澈)충무 등의 9년 동안 성력(誠力)으로 용산단과 덕양서원 일원이 전라남도 문화재 제56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1987년 상학(相學)도유사가 관리사를 이축했으며, 문화재 지정 이후 도비 4천만원으로 용산재와 덕양사우에 각각 2천만원으로 개와(改瓦)했다. 이어 1990년 형철(亨澈)이 도유사에 취임 군비보조 5천만원으로 구룡문을 중건하고 대중중 보조 1천만원으로 부지용 토지 2필지를 매입 했으며 구비(舊碑)를 입각(入閣)시켜 쌍립(雙立)케 하고 비각을 보수단청 한 뒤 계마석 주위를 보수하고 도로 3곳에 안내 표지석을 건립하였다.

이어 호균(湖均)도유사 후임으로 1998년 취임한 두천(斗千,斗澈)도유사가 용산단 성역화 사업을 추진, 대중중과 전국의 중원을 설유하는 한편 곡성군과 전남도, 문화재청등 관계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거금 30여억원으로 부지 1천여평을 매입, 경내를 확장하고 용산재(龍山齋)를 비롯, 동·서재(東西齋), 전사청(典祀廳), 내삼문(內三門), 관리사(管理舍), 화장실(化粧室), 협문(夾門)등을 전면 신축, 용산단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대역사를 이룩했다. 이 때 곡성군 고현석(高玄錫)군수와 후손 문화관광부 낙균(樂均)장관, 상균(相均), 호균(湖均), 창섭(昌燮), 인철(仁澈)충무의 노력이 지대하였으며 특히 후손 정남(正南)이 부지용 전답 700여평을 매증, 성역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경내에 시조 동상을 건립하고 관상수 500주를 식재하였다. 유식(有植)도유사가 취임 외삼문과 전후 담장을 축조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였으며 각급 토지와 건물을 정비 관리했다. 뒤 이어 2007년 현덕(鉉德)도유사가 취임, 조형래(趙亨來)군수와 상규(相圭)광주지검 검사장, 현대(鉉大)충무와 협력하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용산재 등 전체 건물을 단청하였으며 외삼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장 성토(成土)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경내가 더욱 환연(歡然)해졌다.

해공 신익희 선생 제62주기 추모식 참례



계절의 여왕 5월! 신록이 어우러진 북한산 자락(수우리 산 73-3)에 위대하신 애국자 해공 신익희 선생이 잠들어 계신다.

2018년 5월 5일 11시 해공 선생의 제62주기 추모식이 묘전에서 상식 고문, 낙균 전 문공부장관, 대중중 현진 충무 등 20여명의 중원이 배석하였고 고인의 유족, 광복회, 국가보훈처, 국민대를 비롯한 학계 및 충동문화, 경기 광주문화원과 광주시민대표, 강북구청장

과 직원일동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해공 선생님은 1894년 7월 11일(음 6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대학을 독학으로 마치신 후 귀국하여 교직에 계시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3.1운동 등 독립활동을 주도하다가 일본경찰의 체포령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제1회 의정원 의원을 시작으로 내무총장 서리, 임시 의정원 부의장, 국무원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시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의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국민대학을 창립하였고,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의장을 연4회 역임하였으며, 1955년 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이듬해엔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추대되었다.

선생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서 50만 명이 운집한 한강백사장에서 사자후(獅子吼)를 토(吐)하시고 유세차(遊說次)전주로 가던 호남선 열차 안에서 5월 5일 아침 향년 63세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선생의 생가(生家)는 경기도 향토유적 제4호(1988.8.16)로 지정되었고, 생활하시던 종로구 효자동 고택(古宅)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영면(永眠)해 계시는 묘소(墓所)는 국가문화재 제520호로 지정되어 관리중이다.

선생은 1962년 3월10일 대한민국 건국장(최고훈장)을 추서(追叙)받으셨다.

매년 선생이 작고하신 기일인 5월5일에 묘전에서 유가족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모제를 봉헌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1년 5월 5일 제45주기 추모식을 시작으로 5년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장 주관으로 추모식을 봉행하고 있다.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는 모금과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해공선생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 3월 25일 제9대 사단법인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으로 박관용 前국회의장을 선출하여 현재에 이른다.

(사단법인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 사업회, 02-730-7558)

금년 음력 5월 17일은 모든 여성의 사표가 되고 학문과 예능을 고루 갖춘 여류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 현모양처로서 겨레의 영원한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사임당께서 서세하신지 467주기가 되는 날이다.

2018년 6월 30(토)11:0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율곡 이이 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5호) 동재인 자임재에서 추모제가 봉행되었다.

이 날 행사는 자운서원(원장 최복현)이 주최하고 신사임당추모선양회(회장 허자이)에서 주관, 파주시청, 파주문화원, 파주유림총연합회의 후원으로, 기관 및 단체, 지역유림, 종친회등 15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우리 평산신씨 대중중에서는 문화부장이 참례하였고 또 문희공파 종중 대표로 현덕 서울시화수회장과 평근 서울시화수회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사간공파 화당공 종중 원순도유사와 현두 전 도유사, 도순 총무, 효순 전 총무 등이 참석하였다.

이 날 신사임당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자임재 제전에는 양옆으로 평산신씨 대중중 길순 도유사의 추모화환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화환이 배열되어 있고, 그 옆에는 취타악대의 연주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정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집례의 창홀에 따라 초헌관 정진홍(성균관여성유도회경기도회장)의 초헌례를 시작으로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가 한 시간여에 걸쳐 봉행되었다.

신사임당은 당호(堂號)이고, 본명은 신인선(申仁宣)이다. 시임당(媿任堂), 임사재(妣思齋)라고도 하였다. 아버지 명화(命和), 어머니 용인이씨 사온(思溫)의 딸사이애 둘째 딸로 외가인 강릉 북평촌에서 태어나(1504년, 연산군10년) 성장하였으며, 19세에 덕수이씨 원수(元秀)와 혼인하였다. 1551년(명종 6년), 남편이 수운관관에 임명되어 아들과 함께 평안도에 갔을 때(율곡의 나이 15세) 48세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자운서원 가족 묘역에 모셔져 있다.

또 유일하게 모자(母子)가 우리나라 종이 화폐의 인물로 5만원권은 신사임당이, 아들 율곡선생은 오천원권의 주인공이다.

사임당(문희공파, 19세) 제 467주기 추모제 참례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중중에서 선정한 2018년도 장학생들에게는 2학기 장학금이 8월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씩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등록하고 영수증 사본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등록이나 성적이 미달(전성적보다 10%이하)시에는 장학금이 중단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학증명서1통과 1학기 성적증명서 1통
(8월 15일까지 제출)
- 2) 등록금 영수증사본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1통
(9월 15일까지 제출)
- 3) 보낼 곳 : (04555)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 7층)
평산신씨 대중중 <문의전화 : 02)776-6151>

시조(始祖, 춘천)

추향제(秋享祭)봉행 안내

오는 10월 17일(수, 음력 9월 9일) 11시에 춘천시 서면 방동리 시조 할아버지 장절공 신승겸 장군 묘역에서 추향대제를 올리고자 하오니 여러 종원은 물론 가족도 함께 동행 참배하시어 시조님의 정기와 음덕을 듬뿍 받아오도록 당부 드리면서 당일 교통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향사 참배 교통편>

▶승용차

1. 춘천고속도로→강촌IC→의암댐(화천방향)→방동리→묘역
경춘국도→가평→의암댐(화천방향)→방동리→묘역
- ※ 네비주소 : 춘천시 서면 신승겸로 272-21(신승겸장군묘소)

▶대중교통

1. 셔틀버스 운행 : 춘천역(경춘선 및 전철 종점)2번 출구 :
10시 정각 출발
2. 전철 시간표
- 전철 : 상봉 07:49 ⇨ ⇨ ⇨ 춘천 09:15
상봉 08:23 ⇨ ⇨ ⇨ 춘천 09:50
상봉 08:33 ⇨ ⇨ ⇨ 춘천 09:40
- ITX : 용산 07:52 ⇨ 상봉 8:18 ⇨ 춘천 9:09

※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람.
(가실때에는 12:15, 14:10에 82번 시내버스가 묘역 주차장에서 춘천역으로 출발합니다.)

파종중 · 화수회 소식

정언공파 파보 발간 및 제6회 충효교육 실시



[철수 정언공파도유사]

정언공파(도유사 澈秀, 31世)에서는 금년 말을 목표로 파보를 발간할 예정이고, 또 2018년도 제6회 충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乙未年)에 발간한 대중

중 평산신씨대동세보에 파종중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아 많은 종원이 족보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현재 전자(인터넷) 족보를 시작하는 대중중에 연계하여 파보도 만들고 대동보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언공파 종원과 그 가족의 수단비는 정언공파중중에서 전액 부담한다.

아직까지 수단을 내지 않은 정언공파 종원은 7월 말까지 정언공파 중중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또, 조상의 얼을 받들고, 역사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후손들이 더욱 훌륭하게 잘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하는 2018년도 제6회 충효교육을 금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동막골길 355-11 구한공(龜漢公, 21世) 묘소에서 시행 할 예정이고, 시간이 된다면 청남대를 탐방을 계획이다.

- 일시 : 2018년 8월 11일(토) 8:30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4, 5번 출구 앞 출발
- 장소 : 세종시 전동면 동막골길 355-11 龜漢公(21世) 묘소
- 기타 자세한 것은 정언공파 중중
(전화 02-985-6639)으로 연락 바란다.

전서공(典書公) 춘향제(春享祭)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2018년 4월 29일(일) 12:00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무주동 전서공(典書公)묘전에서 전서공파 태화(泰華)도유사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순(光淳)고문의 집례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현익(鉉益, 추화문중), 아헌관에는 금섭(金燮, 남원문중), 종헌관에는 형섭(亨燮, 김포문중), 대축에는 도유사 태화(泰華), 집사에는 청평문중의 상철(尙澈), 용철(容澈)종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봉행 후 2018년도 파종중 정기총회가 현지에서 이어졌다. 우선 파종중 부도유사이신 진균(震均)종의 부음을 전하고 1분간의 애도의 묵념이 있었고, 이어 태화도유사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으며, 감사 동석(東錫)종의 2017년도 수지에 대한 감사결과 적절히 집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음 총무의 2018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진사공파 2018년도 정기총회 제 1회 장학금 수여



진사공파 중증은 2018년 3월 3일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소재 경천대 펜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파중증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장학사업에 첫 수혜자로 우승(34세, 경희대 화학과2년)군을 선발하고 이 날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수여식이 있었다.

우승군은 면학정신이 투철하고 효성이 돈독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수혜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 날 제39차 정기총회에서는 40여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임기가 만료된 현표균 도유사를 차기 진사공파 도유사로 만장일치 재선임 하였다.

◆ 장학금 기탁자 명단(존칭생략, 가나다순)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국희	10만원	기균	10만원	도희	4만원
동식	30만원	무희	4만원	봉균	10만원
세희	10만원	용균	20만원	육희	4만원
택균	100만원	표균	54만원	현주	10만원
총회상금기탁 45만원		합계	311만원		

찬성공(贊成公)중증 - 종원 친목도모 행사 -

2018년 5월 15일(화) 사간공파 찬성공 중증에서는 길순 도유사의 106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이 10번째로 '찬성공 중증 친목도모 연례행사'를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낙산사를 탐방하였다. 그간 훌륭한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선조님들의 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숭조사상과 종원 친목을 도모하였다.

2008년도를 시작으로 시조 장절공께서 태어나신 전남 곡성 용산단을 위시하여 공산 전투에서 위왕대사 하신 대구시 소재 표충재와 시조님이 모셔져있는 춘천시 방동리 묘소의 사간공파조(諱 浩 : 경기 연천군)의 묘소와 사간공의 6대손인 찬성공(諱 黯 : 여주시 월송동)의 묘소, 찬성공 장남인 경력공(諱 恭一 : 여주시 월송동) 묘소, 차남인 집의공(諱 寬一 : 경북 예천군), 삼남인 화당공(諱 敏一 : 경기 파주시)묘소, 그리고 신립장군 유적지인 충주시 탄금대를 위시하여 숭모사상을 기리는 조상님들의 업적과 행적을 찾아 순례를 하면서 종원들에게 자부심과 친목을 도모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율리사(栗里祠) 춘향제(春享祭) 봉행



2018년 5월 5일(토, 음력 3월 仲丁日)11:00 충남 서천군 비인면 소재 율리사(도유사 昇容, 충남 문화재 제303호)에서 유림(11명)과 종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율리사(栗里祠)는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송겸(申

崇謙) 장군을 비롯하여 13세 현(賢, 不諱齋), 14세 혼(琿, 翰林), 15세 연(演, 대제학공파조), 23세 온수감공파(溫水監公派) 기(淇)와 철(澈), 오(澳) 등 7인의 선조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1851년 세덕사(世德祠)로 건립되었으나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18년 다시 세워졌다.

이 날 구한완(丘漢完)유림의 집례로 초헌관에는 신동순(申東淳, 서천군수 대행), 아헌관에는 이풍호(李豐浩)유림, 종헌관에는 구갑섭(丘甲燮)유림이 분정되어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7위의 신위 전에 분향, 헌작, 독축, 재배를 마치고 음복례와 망요례, 축문 소각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봉행 후 제관 전원은 함께 오찬을 같이하고 유림들은 먼저 귀가하고 본 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금년 종무에 대해 논의 후 귀가하였다.

(제관 분정표)

직책명	구분	성명	직책명	구분	성명
초헌관	서천군수대행	신동순	봉로	유림	안광직
아헌관	유림	이풍호	사준	본손	신동일
종헌관	유림	구갑섭	봉작	유림	박옥규
집례	유림	구한완	전작	유림	유창종
대축	유림	박종화	찬인	본손	신한섭
진설	유림	김만제	직일	유림	구자홍
봉향	유림	추동선			

경백사(景白祠) 춘향제(春享祭) 봉행

2018년 5월 5일(토, 음력 3월 중정일)11:00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경백사(경상남도 문화재 234호)에서 춘향제가 유림 및 각지역 평산산씨 화수회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경백사는 장절공(壯節公) 신송겸(申崇謙)장군을 비롯하여 문정공(13세, 文貞公) 신현(申賢),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 윤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초헌관에는 박성재 사천시장 권한대행, 아헌관에는 장병석 문화원장, 중헌관에는 신기일 창원화수회 회장이 분정되었다.

신현유 도유사는 해마다 지역의 유림과 화수회에서 참석하여 정성을 다해 춘향제례에 참석하여 주심에 고마움을 전하고, 5월13일에 개최되는 사천화수회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새로 선임된 손상모 서원장은 사천향교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백사 춘향제례 진행을 주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또 평산신씨 종원들의 제례를 준비하는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사천향교 구암한시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권 총무 유사는 ‘경백사 춘향사 서수헌작’(景白祠 春享祀庶羞獻酌)이라는 한시를 낭송하여 제례에 임하는 유림들과 종원들의 추모하는 마음의 다짐을 더해주었다.

이러한 경백사 춘향제례 봉행 행사는 유림들과 지역민들이 벽상공신 장절공의 천추에 길이 빛날 위업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 평산신씨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화수회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30일 오전 11:30 종로3가 한일장(4층)에서, 2018년도 서울시화수회 제47차 정기총회를,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용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이날 개회선언에 이어 성원보고와 국민의례를 마치고 내빈 소개와 공로패(신태화 부회장) 수여가

있었다.

개회사에서 현덕회장은 “회장이 된지 오늘로 일년이 되었는데 특이한 발전은 없었지만 사무실 비품을 일부 교체하였고, 화수회원들의 친목다짐을 위한 사적지 탐방으로 서천의 울리사와 대전의 뿌리공원을 다녀왔으며, 또 도봉구 화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은 하였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명예회장인 용수회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시대가 급변하고 씨족 관념이 희박하여져 화수회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화수회를 회장이 아무리 유능하다 치더라도 회장 혼자서는 어려우므로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많이 도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문웅 명예회장은 대중중에서 주관하는 전자족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식순에 따라 전차회의록 낭독과 신승 감사의 감사 보고와 2017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으나 창용 부회장의 제의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의 없이 모두 승인 가결 되었다. 이어 마련된 오찬으로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상군 마포구 회장의 건배 제의에 한 층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모든 시간이 끝난 후 기념품을 배부하고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인천시화수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수군 인천시화수회장】

2018년 4월 18일(목)18:00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고향밥상’에서 종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화수회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수군 회장은 초두 인사말에서 오랜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서 건강과 안부를 묻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라고 말하면서 우리 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지만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화수회에 튼튼한 기둥이 되어 계신, 현관 전 부회장, 만수 전 회장, 현숙 부회장, 언한 고문 등 네 분에 대해서 연노하신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신다고 치하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장으로 일하는 본인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마음을 다지곤 한 다면서 우리 같이 우리 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봄, 가을에 춘천 향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17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

와 금년도 예산안 등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되고 회의 운영에 따른 의견과 화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은 후 폐회하였다.

大邱 · 慶北 花樹會 - 第68次 定期總會 開催 -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대구 표충재 상절당(表忠齋 尙節堂)에서는 大邱 · 慶北 花樹會 第68次 定期總會가 표균(彪均) 진사공파종중도유사, 현문(鉉文) 표충재종중 도유사, 현종(鉉宗) 大邱 · 慶北 花樹會 고문, 상령 釜山 · 慶南 花樹會事務局長과 자문위원 및 지역 화수회장 등 23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즐거운 경음악연주의 式前行事에 이어 開會된 회의에서 동하(東夏) 회장은 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종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후 이어진 開會辭에서 시조님의 얼이 깃든 순절지(殉節地)에서 68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우리 화수회 총회를 갖게 되어 더욱 뜻 깊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평산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구, 경북도내 시·군 화수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종원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표균 진사공파종중 도유사가 대독(代讀)한 축사에서 대종중 길순(吉淳) 도유사는 시조님의 萬代에 빛나는 충절(忠節)의 선혈(鮮血)이 얼인 표충재에서 大邱 · 慶北 花樹會 회원들의 종중과 화수회에 대한 높은 참여와 열정(熱情)을 치하(致賀)하고 단합된 화수회원들의 모습에 감사와 축하를 주셨고, 현문 표충재종중 도유사의 격려사에 이어 화수회 會務報告와 화수회 발전방안(發展方案)이 진지(眞摯)하게 논의되었는데 지금까지 매년 5월 첫 토요일에 열렸던 화수회 총회일자를 내년부터 4월 마지막 토요일로 변경 실시하여 종원들의 참여에 편의(便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광주 · 전남 화수회 -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



2018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 별관 텔리하우스 대회의장에서 종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 전남 화수회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종중 길순 도유사와 장군단 성역화 사업 추진 위원장 근택 도유사, 대구 · 경북 화수회 동하 회장, 사간공파 근택 도유사의 축하 화환이 식장을 밝게 장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오찬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식전행사로 맘마스 하모니 아코디온 중년 여성팀 6명의 연주로 아름다운 선율은 한층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우리들은 고려태사 신승겸 장군의 후손들’이란 대형 프랑카드를 벽에 붙여 회의장 전체가 우리 평산 신씨 후손이란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형식 화수회장의 개회 선언 후 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님을 비롯한 조상님에 대한 묵념을 한 뒤, 내빈 소개와 종원 서로 간 인사하기가 이어지고, 다음 형철과 현덕 명예회장님, 명식 용산단 도유사, 인현 덕양서원 도유사님이 대표로 단상에 마련된 시루떡 케익을 커팅했다.

이어서 형식 회장은 제 63회 정기총회를 맞아, 광주 · 전남 화수회 회장으로 6년동안 재직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종사를 헌신 봉사하신 전임 현덕회장을 비롯하여 동식 전 사무국장, 인현 덕양서원 도유사에게 공로패를, 목포시화수회의 예균중, 영광군 화수회의 규담중, 해남군화수회의 정현중, 그리고 무안군화수회 부회장 재준중, 선원공 종친회 감사 경철중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회장 인사말에서 “1956년 병신년에 처음 출범한 화수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평생을 화수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오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님과 도유사님 그리고 각 지역 시·군 화수회장님, 소종중 회장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군단 성역화 사업에 우리 광주 · 전남 화수회 종원 모두가 열성적인 협조로 성공하여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하였다. 이어 형철명예회장, 전 현덕회장, 인현 덕양서원 도유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식순에 따라 사헌 사무국장의 종사 보고, 현철 · 영길

감사의 감사, 재무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기타사항으로 「장군단 성역화 사업 추진 위원회」 추진상황 설명이 있었고, 용산단 명식 도유사가 건강상 이유로 도유사직 사의를 표하여, 현대 수석 상임부도유사를 선임하자는 동의·재청이 있어 큰 박수로 환영하고, 신임 현대 도유사의 수락 인사 말씀으로 폐회하였다.

장군단 향사 봉행 및 정기총회



온 산야가 푸르름으로 뒤덮인 신록의 계절 5월!

5월 1일(음력3월16일)오전 11시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 태안사 후록(장군등) 장군단에서 전국에서 15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 장절공 순절 1091주기 장군단향사가 엄수되었다.

단소 앞에 전국에서 천정된 제관 및 제집사를 필두로 후손들이 서립한 가운데 봉행한 이날 향사는 장군단중중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먼저 태안사 주지 각초스님과 계현스님의 독경이 엄숙한 분위기속에 잔잔하게 산천을 울려 퍼질 때, 우리 후손들은 일천년의 긴 세월의 역사를 한 눈에 보고 있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스님들의 독경이 끝나고 집례 현덕의 창홀에 따라 초헌관 후손 동하의 초헌례에 이어 아헌관 현극의 아헌례와 종헌관 희철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 되었는데 주관 후손 영철의 독축이 봉두산에 메아리칠 때는 마치 시조님께서 금방이라도 나타나실 듯하여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망로례와 음복례를 마친 헌관 및 제집사와 후손들은 단소를 중심으로 기념촬영을 한 후 태안사 경내에 마련된 오찬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근택 대종중 부도유사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태안사주지 각초스님, 대전·세종·충남화수회 민철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장군단중중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전국에서 참례하신 중원이 소개된 다음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시조님의 거룩하신 충과 절의 정신에 다시 한 번 감복했다.

● 헌관 및 제집사자

初獻초헌 : 東夏 동하(대구·경북화수회 회장)

亞獻아헌 : 鉉極 현극(충남 서천화수회 회장)

終獻종헌 : 燾澈 희철(부정공중중 부도유사)

執禮집례 : 鉉德 현덕(대종중 부도유사)

祝官축관 : 永澈 영철(부정공중중 부도유사, 정음)
陳設진설 : 興燮 흥섭(장군단 사무부처장, 광주)
司尊사준 : 東彦 동언(장군단 상임유사, 고흥)
奉香봉향 : 東珍 동진(장군단 사무부처장, 남원)
奉爐봉로 : 東國 동국(장군단 상임유사, 가평)
奉爵봉작 : 柱鎬 주호(장군단 상임유사, 남원)
奠爵전작 : 東烈 동열(장군단 상임유사, 금산)
贊引찬인 : 翰燮 한섭(장군단 부도유사, 서천)
直日직일 : 東元 동원(장군단 부도유사, 광주)

● 헌성금 접수 내역

이름	주소(소속)	금액(원)	이름	주소(소속)	금액(원)
신동하	대구.경북화수회 회장	1,000,000	신창열	부산.경남화수회 부회장	100,000
매곡중중	대구	300,000	신상경	부산.경남화수회 사무총장	50,000
신원섭	대구.경북화수회	50,000	신현우	경백사 도유사	100,000
신상길	대구.경북화수회	50,000	신재철	거창화수회 사무국장	100,000
신근택	대종중 부도유사	100,000	신형원	가평화수회	50,000
신현덕	대종중 부도유사	100,000	신동균	"	50,000
신문식	전라북도화수회 회장	100,000	신동국	창공중중(가평)	100,000
신정차	전주시화수회 회장	100,000	신승철	사서중중(가평)	100,000
신현두	무주군화수회 회장	50,000	신관섭	동막중중 사무국장	100,000
신주호	장군단 상임유사(남원)	100,000	신은철	경렬중중(가평)	100,000
신근옥	남원시화수회 회장	50,000	신영식	가평화수회	50,000
신동복	남원시화수회	50,000	신현필	남양주시화수회	50,000
신명식	장군단 상임유사(부안)	100,000	신정현	해남군화수회	200,000
신성식	전북청장년회 회장(김제)	100,000	신동언	고흥군화수회 사무국장	100,000
신현운	전북청장년회 사무국장	50,000	신하섭	장군단 명예도유사	50,000
신인균	김제시화수회	50,000	신형식	광주.전남화수회 회장	100,000
신도석	장군단 부도유사(고창)	200,000	신종호	강원도원주화수회	100,000
신동근	고창화수회 사무국장	50,000	신동원	장군단 상임유사(광주)	50,000
신유섭	장군단명예도유사(고창)	50,000	신남선	광주.전남화수회	50,000
신영남	고창화수회 회장	50,000	신현섭	담양화수회 회장	100,000
신현국	충남서천화수회 회장	200,000	신현동	장군단 교문(담양)	100,000
신한섭	온수감공 사무처장	50,000	신석원	화순화수회	50,000
신희철	부정공중중 부도유사	200,000	신동인	담양화수회	50,000
	동추공중중(정음)	100,000	신경현	광주.전남화수회	50,000
신명식	경남진주화수회 회장	100,000	신현실	순천화수회	100,000
신세균	정읍화수회	50,000	신동학	곡성군화수회	50,000
신형철	"	50,000	신동연	순천화수회	50,000
신태순	정읍화수회 회장	50,000	신동수	장군단 교문(광주)	100,000
신경영	정읍화수회	50,000	한성윤공파	회장 신동수	100,000
신형철	"	50,000	신기호	덕양서원 관리소장	50,000
신민철	대전.세종충남화수회 회장	100,000	신창일	장군단 사무부처장	50,000
신동열	충남금산화수회 회장	100,000	신인현	덕양서원 도유사	100,000
신홍현	충남공주화수회 회장	100,000	신민주	장흥화수회 회장	100,000
신광섭	대전.세종충남화수회부회장	50,000	신영걸	용산단 사무처장	50,000
신현문	표충재 도유사	100,000	신현대	용산단 도유사	100,000
신명식	용산단 전 도유사	100,000	이호정	서울(외손)	50,000
신광섭	서천화수회	50,000	신원균	곡성화수회	200,000
합 계			7,250,000		

大邱 梅谷宗中 第56次 花樹會議 開催



지난 5월 13일 대구 매곡종중 제56차 화수회 총회는 경기도 가평 산수곡 판원사공 묘소 참배로 시작되었다. 대구 등지에서 대형버스 7대에 분승하여 도착한 종원과 근택 사간공종중과 판원사공종중 도유사 외 수도권 일원에서 모인 종중 간부 등 총 240명의 종원은 判院事公(諱 敬宗)과 正郎公(諱 守福)묘소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수를 진설하고 동희(東希) 花樹會長의 헌작(獻爵)과 함께 전 종원이 제례를 올렸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위치한 매곡종중(梅谷宗中)은 사간공(15世 浩 : 思簡公派祖)의 5世孫 낙은처사(樂隱處士) 휘(諱) 용부공(用褒公)이 다사읍 매곡마을에 정착한 이래 500여년간 번창하여 평산신씨(平山申氏)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어 현재 약 4,000여명의 종원이 소속되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에 화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이 56회째가 되는 날로, 종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승조돈목 정신함양(崇祖敦睦精神涵養)을 위하여 경기도 가평읍 산수곡 파조(派祖)의 둘째 아드님이신 경종 판원사공과 수복 정랑공 묘소를 참례하였다.

영주시화수회 정기총회

영주시화수회(회장 용식 판사공파 34세, 총무 영환 35세)는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12시 울주군 언양읍 선사시대의 유적 반구대 암각화 부근 유정호 선장집 식당 회의실에서 종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용식 화수회장은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1년간의 화수회 활동을 상세히 보고하고 회원들의 고견을 바란다는 인사말이 있었고, 현국(제정공파 33세)감사의 전년도 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다.

다음으로 임원 선출에서는 현도 총무 후임으로 판사공파 영환(35세)을 새로운총무로(영주시화수회원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회원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고 폐회하였다.

충주시화수회 신립장군 및 팔천고혼 위령제 참제



2018년 6월 11일(음력 4월 28일) 11:00 충주 탄금대 팔천고혼 위령탑에서 충주문화원 주체(후원 : 충주시 및 교육청, 육군 3105부대, 평산신씨 대종중, 순천김씨 대종회)로 충주시 기관장 및 200여명의 시민들과 신영준 충주시화수회장을 비롯한 화수회원들과 문희공 여러 종손들이 헌화 및 분향에 참석하여 위령제를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선조 25년(1592년) 4월 15일 일본은 21만 병력을 이끌고 침략, 상주 및 문경을 점령 후 조령을 넘어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군을 충장공 신립 장군과 휘하 김여물 부장을 비롯한 8,000여명의 군사들이, 음력 4월 28일에 배수진을 치고 옥쇄 작전을 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장렬히 순절한 의군의 뜻을 받들고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이 날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충주시 화수회와 문희공 문중에서 해마다 많은 종원들이 참제하고 있다.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2018년도 제10회 개최 안내



【 2017년 효문화 뿌리 축제 참가 모습 】

매년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제10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10월 5일 ~ 10월 7일까지)가 국가유망축제로써 국내유일의 성씨 테마 공원인 대전 뿌리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열립니다.

2017년에는 우리 평산신씨 문중에서 250여명의 많은 종원들과 가족이 참가하여 3년 연속 수상한 끝에 대상(사진)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대중중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하에 각 파종중도유사, 각 유적지 도유사, 각 시도화수회 회장들의 지원 속에 시조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후손으로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문중 영웅 퍼레이드”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8. 10. 05(금) 오전 9:30 ~ 10. 07(일) 17:30
2. 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침산동) 뿌리공원 일대
3. 집결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내 (효문화마을) 평산신씨(문장기 107번)
4. 기타 상세한 축제행사 주요내용은 대중중 홈페이지에 실을 예정임(9월초)
5. 연락처 : 대전·세종·충남화수회장 : 신민철(010-9454-9151)
총무 : 신이순(010-5534-1113)

종원동정

申金澈 (思簡公派 34世) 화천군 의회 의장 취임



평산신씨 대중중 제례위원인 금철宗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화천군의회의원으로 재선되고 또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화천군 사내면 고향인 금철의원은 아버지 현규(33세, 사간공파)와 어머니 박옥분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학업을 모두 마친 후 고향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각급 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대중중의 대·소사에도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시조 추향사와 금년 춘향사에 대축으로 수고하는 등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으로 평산신씨의 명예와 긍지를 더 높이길 기대한다.

신재섭(申在燮, 文僖公派 36世) 원주시 의회 의장 취임



평산신씨 문희공파 36세인 재섭(在燮)宗이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전국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원주시 의원(더불어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 번 선거가 3번째로 당선된 宗은 또, 원주시 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宗은 원주시 신림면이 고향으로 아버지 동필(東弼 35世)과 어머니 이계선(李季先)여사 사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일꾼이 되고자 뜻을 세우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연이어 3번씩이나 원주시 지역 주민들에게 유능하고 촉망받는 지역 일꾼임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개인의 영달은 물론 평산신씨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가균(申可均, 정언공파 32世) 자전 에세이 ‘젊신과 결망’ 발간



평산신씨 집성촌인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응촌리 매배이 마을에서 태어난 가균宗은 ‘에세이 21’ 문단에 등단(2010년)후, 여러 편의 수필을 발표하였다. 팔순이 넘은 그가 2018년 5월 3일 <<신가균 자전 에세이 결망과

젊신>>力作을 발간하였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탕으로 쓴 글에서 옛날 사회상과 당시의 말씨가 이채롭고 그리운 옛 고향의 어릴 적 추억이 물씬 묻어나는 구수한 작품들이다.

사고(思考)의 편린(片鱗)



밥사발의 일생

신가균(정언공, 32세)

아침 햇살이 화창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짹짹!” 소리를 내며 주방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돌처럼 무거운 내가 주인의 발등을 찔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침 식사를 끝낸 이집 안주인이 내게 붙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개수통으로 옮기다 실수를 한 것이다. 밥사발인 나는 조심하지 않은 주인을 탓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한데 내 몸 전두리에서 굵 쪽으로 실금이 죽 그어지는 흠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상처가 생겼어도 옥빛처럼 옅은 빛도 그대로이고 모양도 변함이 없다. 그러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고 해서 맛이 떨어지거나 몸에 해로울 리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접시나 반찬 종지기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쓰레기통에 곧장 버리는 게 상례다.

흠집 때문에 퇴박을 맞게 된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내 굽바닥에는 내로라하는 사기장이 빚었다는 표시가 찍혀 있다. 준수한 용모로 뽐을

받아온 내가 이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가를 생각하며 나의 전세(前世)를 되돌아봤다.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沙器)가 되기 전의 흙을 고령
토, 혹은 백토라고 부른다. 몇 억 겁 동안 아무 일 없이
지하에 묻혀 있던 어느 때 부터다. 우리 백토를 파내려
는 연장 소리가 땅울림으로 들려왔다. 그런 소리가 차
츄م 가깝게 들리던 어느 날이다. 여러 사람들이 땀을 뻘
뻘 흘리며 우리들, 즉 고령토를 삽으로 파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 손에 이끌려 바깥세상으로 나오니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있다는 것과, 해가 있어 밝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세속으로 나온 우리 고령토를 물에 넣고 걸러 내는 장
치를 ‘구영통’이라 하고, 그 물을 체로 받쳐 침전시키는
설비를 ‘땅구멍’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말이다. 도자 용
어로는 도토수비(陶土水飛)라고 한다.

이런저런 곡절을 겪은 우리 흙덩어리를 진흙이라고 하
는 이도 있고 점토라는 사람도 있었다. 손으로 만져 보
면 정이 저절로 들만큼 보드라운 진흙이 됐다고 해서 끝
이 아니다. 더 차지게 하려고 ‘질귀’에 넣고 맨발로 밟아
밀어내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완벽한 그릇의 원료가 되
는 것이다. 그런 점토물치에서 적당히 떼어 물레 위에
엮어 놓은 흙을 ‘꼬박’이라 했다. 물레 위에 놓인 우리
꼬박덩이가 정신없이 뱅글뱅글 도는 동안 사기장 뜻대
로 접시, 밥사발, 종지기 등등의 그릇 모양이 되었다.

초벌구이 가마에서 불 짐질을 당하고 나왔어도 내 모
양이 완성된 게 아니다. 걸쭉한 잿물을 온몸에 바르고
재벌구이 가마로 들어갔을 때는 유리가 녹을 만큼의 고
열이었다.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참기 어려운 열기에
혹독한 단근질을 당했다. 이렇게 갖가지 인고를 겪은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은 사발, 접시, 커피잔 등등으로
불렀다. 흙이 아닌 사기그릇으로 환탈(換奪)된 내가 이
집으로 오면서 주인과 그릇의 사이가 된 것이다.

달걀 노른자가 익을 만치 뜨거운 밥을 담아도, 설거지
물에 푹 담가 두어도, 얼음이 뚱뚱 뜬 나박김치를 담아
냉장고에 가두어 두어도 나는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듯, 나도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된
건 누구 탓 아닌 내 운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조상
들의 내력을 떠올려 봤다.

우리 사기의 먼 윗대인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만들던
장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품계가 얇은 도공이었더
라도 배는 부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고된 배를 움켜쥐
고도 명품 빚기에 미쳐 있었는지 . . .

훈신의 힘을 다 쏟은 작품을 가마에서 꺼내다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사금파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깨버리고
남긴 진품(珍品)을 요즘 사람들 보면 “나무랄 데 없
는 명기(名器)”라고 입을 모은다. 알고 그러는지 그냥

해 보는 소린지 . . . 실금이 간 나도 청자나 백자시대 때
생겼더라면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가당찮은 생각도 해본다.

옛날의 사기장들은 훌륭한 걸작만 남겼다. 밥사발인
나도 내 됴됨이를 모르듯 고려자기(高麗瓷器)나 백자 자
신도 제가 걸물(傑物)이란 걸 알 리가 없다. 그럴밖에
사람도 그런 수작(秀作)을 알아보는 이가 있고, 귀신이
붙은 그릇이라며 패대기를 치는 이도 있으니까.

쓰레기통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에서 옛 명품자기
(名品瓷器)모양을 한 구름 조각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쌀과 보리의 균형

대종중 총무부장 현진 (33세, 사간공)

쌀(米:미)은 부드럽고 감미로워서 먹기가 좋은 여성의
성질이 있으니 수염이 없다. 보리(麥:맥)는 거칠고 쌀
밥처럼 달콤하지 않아 남성의 성질이 있으니 수염이 있
다. 조물주의 섭리(攝理)는 참으로 묘(妙)해서 “불(火)”
과 “물(水)”은 상극(相剋)이면서도 둘이 함께하지 않고
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섭리해 놓았다.

여성의 밭(田:전)은 화성(火性)이고 남성의 논(畝:답)
은 수성(水性)이다.

남성인 보리는 여성인 밭(田:전)에서 생육(生育) 성장되
고 여성인 벼는 남성인 논(畝:답)에서 생육, 성장됨은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는 곧 남녀 간 서로 다른 이성과의 만남 없이는 정상
적인 삶을 영위(營爲)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 흥미로
운 것은 여성인 벼(쌀)는 어릴 때부터 자라난 모판에 그
대로 두면 벼 구실을 못하므로 반드시 남성의 집인 논으
로 옮겨 심어야 하듯 여성은 시집을 가서 살아야 정상적
인 여자구실을 할 수 있고, 남성인 보리는 싹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율기(刈)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게 되듯이,
남성은 성장한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임을 일
깨워준다.

여성의 가장 큰 비애(悲哀)가 시집가는 일이라 말하
기도 하지만 이것은 조물주의 깊은 뜻에 의한 섭리임을 깨
달아야 한다. 간혹 아들이 없거나 재물이 많으면 딸자
식을 내 집에 두고 사위를 맞아들여 살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딸은 여자구실을 할 수 없으며 사위
또한 남자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벼와 보리는 어릴 때는 똑같이 고개를 숙이지 않지만
벼(女)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보리(男)는 익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리의 성질을 닮은 남
성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천성(天性)이 있지만, 벼의 성질을 닮은 여성은 나이가 들어 교양이 있고 속이 꼭 찬 여성으로 성장하면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미덕(美德)을 갖게 되는데 이런 고매(高邁)한 품성을 지닌 여성을 “현모양처:賢母良妻”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나이든 여성들은 남성들의 천성을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므로 머리를 숙이듯이 이해하고 참아준다. 여인의 그런 품성 덕분에 가정에 평화가 있고 변함없는 부부의 애정을 지킬 수 있다. 시간이 지나도 깨끗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있는 벼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 쪽정이가 되듯이 숙일 줄 모르는 여인 또한 속이 차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화목의 바탕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남편을 굴복시키려는 생각이나 맞서려는 생각 보다는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저 주면서 미소와 애교라는 부드러운 무기를 사용하면 아내에게 굴복하지 않을 남편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세상을 호령하는 남성을 지배하는 자 바로 여성이라 했다. 조물주의 참 이치를 깨달아 즐겁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하시기를!

가고 싶은 내 고향

신 현 숙

(33세, 인천시화수회부회장)

남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설 때나 대소사가 있을 때가 다가오면 고향에 갈 생각에 들떠 있는데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고향이 있어도 갈수가 없네

삼팔선을 넘어야 고향을 가는데 넘을 수가 없네 하늘에 뜬 구름아 나 좀 태워서 고향에 보내 주렴 너는 산도 바다도 넘고 건널 수가 있잖니 내 고향은 황해도 평산 이란다.

바람아 불어라 북쪽으로 황해도 평산 쪽으로 그곳에 가면 가막산이란 큰 산이 있단다. 나를 태워서 그 곳 증덕에 내려주면 걸어서 내가 태어난 마을을 찾아 보련다 아 ~ 그리운 내 고향

대한민국 조선(造船)의 아버지 신동식 박사(35세, 진사공파)

글: 신표균(시인, 진사공파 도유사)

세계 최고의 조선 신문 로이드 리스트는 그를 「조선의 아버지(father of shipbuilding)」라고 명명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TV 역시 그를 「조선의 아버지」로 지칭했고, 정론지 조선일보 또한 「조선의 아버지」 신동식(申東植)을 전면 두 페이지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그를 불러내어 새롭게 조명하는 까닭이 있었다.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분야를 이끌어 온 대표 주자로 철강-박태준, 건설-정주영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잡초만 무성하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초석을 놓고, 전세계 1위 조선 국가를 이룩한 신동식 박사를 기억하는 일반 국민은 많지 않으리라 짐작이 된다. 조선-신동식, 대한민국 근대화 주역 3총사의 한 사람인 그는 86세(1932년생)인 지금도 현역으로 전세계 조선업계를 누비고 있다.

<최고 지도자와 국보의 만남>

지난 3월23일 ‘조선의 아버지’를 만나 우리나라 조선이 걸어 온 어제와 오늘의 생생한 발자취를 들어 보았다.

1964년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만난 두사람의 대화. “대한민국 조선을 살리시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소!” 젊은 혁명가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심증을 꺼내 보였다. 그의 어조는 명령이라기 보다는 간곡한 염원이 담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주한 청년의 심금을 울렸다. “실패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조선 인재를 찾기에 목말라하던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 또 한 사람은 선진 조선국에 취업 유학을 떠나 첨단 조선 기술을 섭렵하고 세계적인 조선 관련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심찬 젊은 조선인(造船人), 둘의 만남과 의기투합은 잡자는 대한민국 조선을 깨우는 역사적 발화점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고, 청년 조선인 신동식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영국 로이드선급 근무를 마친 다음 이번에는 미국선급 ABS검사관이 되어 뉴욕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날 두 사람의 ‘뉴욕의 결의’가 대한민국 조선사의 운명을 바꿔 놓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 매체에서는 ‘부러진 두 조각의 칼을 맞추어 부자(父子)임을 확인한 주몽과 유리의 설화를 연상케 한다.’고 썼고, 또 한 곳에서는 대한민국 조선판 ‘도원결의’로 비유를 했다.

뉴욕의 만남을 계기로 신동식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뒷받침을 보장 받고 귀국하여 대한민국 조선산업 현대화의 마스트플랜을 마련하고 주위의 냉소와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면서 아무도 거들며보지 않는 잡초 무성한 황량한 벌판에 맨주먹으로 대한민국 조선사업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는 하루아침에 일개 조선 엔지니어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발탁된다. 대한민국 역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32세의 신동식에게 막중한 국사를 맡긴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신국보(申國寶)'라 불렀다. 얼마나 그의 능력을 높이 샀기에 그런 별명까지 붙여 주었을까.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를 '신국보'라 불렀다. 그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질시와 질투를 유발할 개연성이 충분한 별명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재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선박설계사라는 직업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선박을 설계할 때 오차가 천만분의 1mm만 생겨도 침몰할 수 있다. 국사를 기획할 때도 그는 선박을 설계하듯 한 치의 오차 없이 기획하고 추진했다. 흔히 나라를 배에 비유하여 '대한민국호'로 칭하면서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또는 '운명공동체'라고도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을 향한 초고속 압축 성장의 시동을 걸던 시기, 이립(而立)을 갓 넘긴 나이에 국가 예산과 외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경제 분야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초대 제2경제수석비서관이 된 신동식 박사.

그의 인생에서 초점은 언제나 조선이었고 그의 타깃은 조선입국(造船立國)이었다. 대학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막막한 심정에서 잠시 교직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으나 커리어의 순간 이동일 뿐 금세 조선의 길로 되돌아왔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조선(造船)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박한 뱃들'이나 하는 짓거리로 치부되었다. 세상에겐 것처럼 사람들이 천시하거나 관심 두지 않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

<신동식, 그는 누구인가>

60여 년 전 그는, 고려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이 시조인 평산 신씨 진사공파 봉화문중 종손(35世)으로 유교적 인습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천백 여년 전통의 명문가 집안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조선쟁이'의 길을 꺾듯이 걸어왔다. 그의 신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진정한 한류(韓流)의 원조인 K-Ship을 이룩했다. K-Ship은 K-Pop이 한류 붐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미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 세계 1위 조선국가로 등극하지 않았는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하듯 세계의 수많은 선주들이 K-Ship에 열광했다. K-Ship은 세계 선박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조선은 품질 좋은 선박으로 세계 선박 시장을 휩쓸었다. 조선이 발전함으로써 기계, 철강 등 연관 산업이 줄줄이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분출된 동력이 나라의 인지도와 국격을 높이고 그 바탕위에서 음악, 영화, 문화 예술 등 각종 소프트산업이 전 세계시장으로 약진할 수 있었다.

2016년 3월 13일 KBS 1TV의 'TV 회고록 여울'은 방

송 시간 50분으로는 부족하여 1주일 후 속편으로 신동식을 재 조명, 2회에 걸쳐 100분동안 그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조선인(造船人)으로 소개했다. 6.25전란 와중에 미군부대 검수원으로 일하던 18세 소년은 부산 앞바다의 거대한 미군 수송함을 보는 순간 그는 장차 미군 수송함처럼 큰 선박을 짓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배쟁이(조선인)'로 살기로 결심한 그를 훗날 세계적인 선구적 조선인으로 키울 줄은 누구도 몰랐다.

신동식은 1932년 9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6년제)는 춘천에서 다녔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이고 중고교 시절을 보낸 곳은 춘천이지만 본적은 신씨 가문이 7백여 년 간 대대로 살아온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마음의 고향이자 영혼의 뿌리가 내린 곳이다. 전통적인 양반 가문의 장손으로, 또한 명문 법조인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어딜 가나 증재라는 칭찬을 받는 모범생이었던 그는 춘천중학교 재학 당시 열린 제1회 전국과학기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받았는데 전국 규모로 열린 큰 대회에서 작은 지방 도시 출신의 학생이 우수상을 탔다하여 나라 안에 화제가 되었다. 이때의 수상이 그의 평생 직업이 된 '조선쟁이'의 길을 알리는 예광탄이 되었다고 주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서울수송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훗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 백남준과 6년 동안 교분을 두터이 하며 서로의 창의력을 함께 나누며 성장한 것도 그의 미래를 담보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유서 깊은 유학자 가문의 종손이지만 집안에서는 조부 및 부친과 더불어 '신세계 종손 삼총사'로 통한다. 그의 증조부는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다. 조부는 수백 년 동안 입신양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은둔, 수학에만 힘쓰던 가문에 반기?를 들고 세상에 출사표를 던졌다. 깊은 밤 홀 어머니(신동식의 증조모)가 계신 안채를 향해 큰절을 올리고 단신 경성으로 올라온 그는 법관 양성소에 들어갔으나 법관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증조모는 가난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손자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시켜 아들이 이루지 못한 법관의 꿈을 이루렸다. 이런 사연으로 법관이 된 신동식의 부친은 오래 장남이 뒤를 이어 법관이 되기를 바랐으나 그는 반민특위와 연루된 재판을 진행하는 부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야 하는 법관의 일에 대해 회의를 품고 6.25전쟁의 소용돌이를 온 몸으로 헤쳐 나가면서 나라의 생존을 고민하고 국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 조선인, 국가기획자, 개척자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판사였던 동식의 아버지는 아들과 좀체 대화를 하지 않는 분이였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무렵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대학시험 준비하고 있겠지?” 뿐이었다. 동식의 대답 역시 “예” 한마디 뿐. 합격자 발표일에도 “합격했겠지?” 와 “예” 가 부자간 대화의 전부였다. 아버지 마음 속에는 당연히 아버지가 법관이고 할머니의 소원도 간곡했기에 종손인 동식이 으레 법과대학에 가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무슨 과에 합격했는지 물어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시험에 합격했다니까 “고등고시를 빨리 준비해라” 고 해서 그제서야 공과대학에 갔다고 말했다니 기겁을 하였고 그날로 신동식은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문중에서 난리가 났다. 어머니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냥 당신의 아들이 당연히 서울 법대에 갔으려니 했다. “그때 내가 공과대학을 간다고 미리 얘기했으면 아마 원서까지 박박 다 찢어버렸을 거야” 라고 회상했다.

당시 판사들은 관사에서 살았다. 아버지와 관사에서 살다보니 가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당사자의 온 식구들이 매달려 울고불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특히 광복 이후에는 사상 갈등이 심하여 한창 사춘기에 남로당인 죄로 중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법관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성세대에 대한 순수한 반항심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조선의 아버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건강이야기



중풍과 치매 예방의 중요성

[문화부 제공]

▶ 중풍의 전조 증상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엄지와 검지가 마비되어 감각이 없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기육(肌肉:근육)이 약간 당기는 것은 중풍의 전조 증상이다’ 라고 하였고 또 ‘손발을 점차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구안와사가 오거나,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가래를 계속 토하면 중풍으로 쓰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내용은 중풍 전조 증상이다.

갑자기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나 중풍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거나 급할 경우 119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다.

-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
- 말이 어눌해져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워진다.
-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어지럽다.
-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 얼굴의 반쪽이 감각이 둔해진다.

특히, 중풍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 중풍의 예방법

중풍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중풍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두뇌 자극하기

간단한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습관을 기르고, 집 전화번호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는 자꾸 외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활동을 하거나, 하루 일과나 중요한 약속 등을 일기장에 메모하는 습관도 치매 예방에 좋다.

2. 균형 잡힌 식사하기

과거에는 영양부족으로 인해 각종 질환들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영양과잉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육류의 잦은 섭취 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스트레스 피하기

임상적으로 살펴볼 때 평소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노출이 된 사람,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레이야기

棗栗梨柿(조율이시)에 대한 상징적 교훈

조(棗:대추)

다른 나무에 비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대추나무의 특성은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서 꽃이 진다.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도 열매 맺기 전에는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가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상에 올리는 대추는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것이요, 결혼식의 폐백 때 시부모가 신부 치마폭에 대추와 밤을 던져주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아 번창하라는 상징이다. 또한 대추는 씨가 하나뿐이라서 왕을 상징하여 제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데 후손 중에 왕이나 성현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대추는 암수가 한 몸이고 헛꽃은 절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栗(율:밤)

모든 씨앗은 발아가 되면 씨앗은 삭아 없어지지만, 밤

은 최초의 씨 밤이 나무가 자라 무성하여도 씨 밤은 썩지 않고 남아있어 자손과 조상이 영원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어 제사에 사용되며 조상의 위패나 신주를 만들 때 밤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상징 때문이다. 밤을 한 송이에 세알이 들어 있어서 삼정승을 상징하며 역시 후손 중에 3정승이 나오라는 염원이 있다.

梨(이 : 배)

배는 과육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속은 딱딱하고 신맛이 강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딱딱한 부위를 씨상이라 하는데 주위의 여건이 씨앗을 발아할 수 있을 때 씨상이 열려 발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자식을 낳으면 잘 보호 육성한다는 상징이다. 배는 씨가 여덟개로 8도 관찰사를 상징하여 역시 팔도 관찰사가 나오라는 염원이고 또한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증을 뜻하며, 배의 속살이 하얀 것은 우리 백의민족에 빗대어서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민족의 긍지를 잊지 말라는 상징이라 한다.

柿(시 : 감)

감은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아니고 고염나무가 된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감나무를 접목시켜야 훌륭한 감이 열린다. 이 뜻은 자식을 낳는다고 다 훌륭한 자식이 아니며,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배우고 익혀서 인성과 인격을 가다듬어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상징으로 제사상에 올린다.

[문화부 제공]

6.13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합니다.

▶ 기초단체장



경기도 광주시장
민) 신동헌(申東憲)
문화공파



전라남도 완도군수
민) 신우철(申宇澈)
사간공파

▶ 시도의원



광주시의원(북구)
민) 신수정(申水晶)
이상공파



강원도 의원(홍천)
한) 신영재(申榮在)
제정공파



강원도 의원(홍천)
한) 신도현(申道鉉)
정연공파



전라남도 의원(완도)
민) 신의준(申義竣)
사간공파



경상북도 의원(청송)
한) 신효광(申孝光)
판사공파



경상남도 도의원(김해)
민) 신영욱(申永煜)
판사공파

▶ 시군구의원



서울시 중랑구의원
한) 신하균(申夏均)
문화공파



대구시 달성군의원
한) 신동운(申東潤)
사간공파



강원도 화천군의원
민) 신금철(申金澈)
사간공파



강원도 속초시의원
민) 신선익(申善益)
밀직공파



경기도 김포시의원
민) 신명순(申明順)
정연공파



경북 예천군의원(비)
한) 신헌순(申香淳)
사간공파



강원도 원주시의원
민) 신재섭(申在燮)
문화공파



경북 상주시의원
한) 신순단(申順丹)
제정공파



경북 상주시의원
무) 신순화(申順和)
문화공파



경북 예천군의원
한) 신동은(申東恩)
진사공파

※ 연락이 안된 당선인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사

신임 상임유사(新任 常任有司)



- 용산단 도유사
- 申鉉大(신현대, 한성운공과 33세)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11 양림 1휴먼시아 108동606호
- 2018. 4. 27 선임

<도서 보급 안내>

1. 평산신씨대동세보



- ▶ 평산신씨 대동세보 재고가 소량 남아 있어서 선착순 판매합니다. (문희공, 제정공, 전서공, 이상공 : 없음)

- ▶ 2권 : 밀직공과, 봉상윤공과, 장령공과, 현령공과 1질2책 12만원
- ▶ 6권 : 정언공과 1질2책 14만원
- ▶ 7권 : 한성윤공과 1질2책 14만원
- ▶ 8권 ~ 11권 : 사간공과 1질5책 26만원
- ▶ 11권 : 대제학공, 운수감공 1질2책 12만원
- ▶ 15권 : 판사공 1질2책 14만원
- ▶ 15권 : 판윤공, 참판공, 군수공 1질2책 12만원

2. 평산신씨 천년사



- ▶ 평산신씨 천년의 역사를 수록한 만세의 귀감이 되는 보감.
- ▶ 후손들을 위한 역사의 공부와 조상에 대한 유훈과 발자취 수록.
- ▶ 가격 : 1질(3권. 2400페이지) ₩200,000원

3. 평산신씨 성보(병자보)



- ▶ 평산신씨 최초의 족보
- ▶ 1636년에 象村 申欽께서 직접만든 한지
- ▶ 한정수량
- ▶ 가격 : 1권 ₩50,000원

4. 시조 장절공 제례 해설집



- ▶ 제례에 필요한 품목, 재료, 조리방법, 제례순서, 축문, 홀기, 진설도 등 제례에 필요한 기록을 수록한 해설집.
- ▶ 한정수량
- ▶ 가격 : 1권 ₩20,000원

5. 종보 철 바인더



- ▶ 종보를 연속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바인더 철.
- ▶ 平山 로고가 있는 예쁜 디자인
- ▶ 가격 : 1권 ₩10,000원

문의.신청 : 02) 776-6111, 6151 (문화부)
송금 계좌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알 림”

다음 종보는 2018년 10월 31일 발행 예정입니다.

종보 성금 내신 분 (2018. 4. 20 ~ 6. 30)

- 개 인 : 410,000

신 상 호 경기도 성남시	20,000	신 광 현 경기도 남양주시	20,000
신 현 식 경기도 성남시	20,000	신 현 주 경북 포항시	30,000
신 동 영 전남 순천시	20,000	신 문 철 충남 천안시	20,000
신 광 균 경기도 성남시	20,000	신 하 섭 광주시 북구	30,000
신 현 목 서울시 동대문구	20,000	신 재 설 경기도 시흥시	30,000
신 태 문 경기도 하남시	50,000	신 홍 균 대구시 수성구	20,000
신 동 철 서울시 중랑구	30,000	신 영 균 전남 곡성군	20,000
신 양 수 경기도 고양시	30,000	신 성 균 경기도 포천시	30,000

- 파 종 중 : 무

- 소 종 중 : 220,000

문희공과 창원서곡중증	40,000	정언공과 학윤중증	40,000
사간공과 해정공중증	50,000	장군단중증	100,000

- 시도화수회 : 200,000

강원도화수회	100,000	제주도화수회	100,000
--------	---------	--------	---------

- 시군구화수회 : 460,000

김포시화수회	100,000	광주시 광산구화수회	50,000
공주시화수회	160,000	영주시화수회	100,000
포천시화수회	50,000		

- 춘천묘소 참배 : 30,000

신 동 선 서울시 잠원동	30,000
---------------	--------

계 1,320,000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화수회 : 20부 년 30,000원
- ★ 중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1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인터넷축보비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010-9357-5337

2018년 8월 ~ 10월 행사 안내

8월 31일	2018년 2학기 장학금 지급예정
9월 15일	장학금 등록 확인서 제출 마감
10월 5일~7일	제 9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10월 7일	송의전 추향사 봉행
9월 22일	덕양서원 추향사 봉행
10월 9일	모영제 추향사 봉행
10월 17일	시조 장절공 추향대제 봉행